

목어

참회의 歲暮

한해가 또 저물어간다. 저들이 가는 한해를 바라보며 세월의 빠른 걸음을 실감하는 일은 나이가 들수록 더한 것 같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불행이 자신만을 비켜가길 바라고 또 나름대로의 부른 꿈에 젖는다.

하지만 어떤 소망이나 설계를 세우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 진지한 참회의 시간을 갖는 일이다.

계획했던 일을 성취하지 못한 아쉬움에 빠지기 보다는 자신과 남에게 잘못을 저질렀거나 부끄러웠던 일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참회는 거울이다. 자기의 양심과 진면목을 혼자서만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다. 참회는 그 거울과 자기에게 눈을 뜨는 일이다.

밖으로만 눈을 돌리다보니 미처 자기를 돌아볼 겨를이 없을만큼 바쁘게 보낸 한해를 회개하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

참회할 줄 아는 존재는 오로지 사람 뿐이다. 그 어느 동물도 심지어는 철대신조라도 참회는 모른다. 오로지 사람만이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것이다.

불행은 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작은 외부에 비치고 오는 것이 아니다. 악귀는 타종교의 신앙에서 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찾아내고 진심으로 참회할 때 새해는 진정한 새해로 내게 찾아올 것이다. 인생은 빠르게 지나간다. 세모를 맞으면서도 참회가 없다면 그저 나이만 먹어갈 뿐 결코 인생이 익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도수 (정명도량 회주 · 본지 논설위원)

9·11 美테러 - 인간배아복제 허용 '교계 침묵'

기자방담 한해를 돌아보며

참석기자= 이경숙 윤제학 임연태 김원우 한명우 김재경 김중근 이은자 오종욱 천미희 고영배 김주일 강지연 김두식 권형진 강유신 김철우 여성영 이한길

—올해 전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9·11 테러사건과 난치병 치료를 위한 치료술로 인간배아복제가 허용되는 등 인류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큰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그러나 교계가 불교적 관점에서 확실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거의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점은 한해를 보내는 시점에서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6월부터 3개월여 동안 불교계는 물론 사회까지 파장을 일으킨 '해인사 청동대불' 건립논란은 '최대 '최고'를 지향해 왔던 불교계가 그동안의 대형 불사문제를 자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지가 처음 대불건립 반대 기사를 보도한 후, 수경 스님이 본지에 대불건립을 반박하는 글을 기고하면서 파장이 커져 사회문제까지 비화되고 (뉴욕타임즈)까지 이 문제를 기사화 했지요.

—올해 조계종이 실시한 3급 승가고시와 신도교육 의무화는 근현대 불교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만한 성과였다고 해도

—태고종은 올 한 해 동안 총무원장이 3번 바뀌는 쑥쓰레한 진기록을 남겼습니다. 지난해 말 '젊은 총무원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종단개혁을 선언하며 출발했던 제19대 총무원장 종연 스님은 곧바로 자격사비에 휘말렸고 종단이 양쪽으로 갈라져 마침내 1종단 2총무원이 되었습니다. 11월 운산스님이 새 총무원장이 되어 화합의 기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태고종 사태가 과연 해결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태종은 4년제 '금강대학'의 기공식을 5월 5일 가졌습니다. 2003년 3월 개교 예정인 금강대학은 종립대학으로 4년제가 되어 불교학 발전과 불자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각종은 올해 제 9대 총인 해일 대종사와 제26대 총무원장 효암 대종사가 새로 취임했습니다. 새 체제에서 내년 회당대종사의 업적과 생애를 조명하고, 진각종의 정체성 확립과 새 도약을 위한 종조 회당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대종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교학계는 어느 해보다 풍성한 해였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학회 수



◇올 한해 도 교계는 해인사 대불조성, 범어사 국고형평, 동국대 공금형평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내야 했다. 방담에 참여한 기자들은 올해를 겨울로 삼아 새해에는 '희망과 도약'으로 나아갔으면 한다는 기원을 했다.

—문화재청은 지역 사찰과 연계한 축제와 산사음악회 등이 다양하게 열렸습니다. 지역 사찰의 불교화장단 활성화도 올해 성과 중 하나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불모지로 여겨졌던 어린이 찬불가 분아가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도 올해의 성과입니다.

—불교출판은 '만들지 않는 것이 돈 버는 길이다'고 할 정도로 어느 해보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대불교학의 태두 김동화 박사의 전집 14권 출간, 한글대장경 완간 등은 우리나라 출판의 한 획을 긋는 고무적 일로 평가됩니다.

—10월 열린 공무원불자연합회 창립 1주년 기념법회와 전국경찰불교회 창립 기념 법회를 전후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불자회 창립이 계속됐고, 직장법회간 연대도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신행단체의 세대교체 바람의 조짐도 보였습니다. 20-30년 이상 재가불자의 법회와 공부를 이끌어 온 대표적 신행단체들의 고령화 현상이 심해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한 반면, 10년 이하의 신행단체는 전문화 특색화 세분화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지역에 불교회관이 잇달아 개원돼, 지역 신행공간이 마련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구미, 대전, 창원, 분당에 대규모 불교회관이 자리잡았으며, 인천과 춘천에도 새 불교회관이 착공돼 지역 불교문화 및 신행이 활성화 되는 기미가 다져졌습니다.

—주요 교구본사들의 사찰 정체성 찾기 움직임도 활발했습니다. 동화사, 월

불교출판가 일년내내 '한겨울' 환경운동 종교간 연대 활발

이 문제는 6주년을 맞은 복지재단 위상조정으로 이어졌고 12월 5일 열린 불교사회복지대회에서 복지재단의 역할과 교구본사와 각 말사간의 역할론이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또 3월 장묘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장례복지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NGO활동은 환경분야에서 두드러졌습니다. 9월 창립된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인 수경스님이 새만금 갯벌 개발 반대운동을 주도한 공로로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01 환경인상 특별상'을 수상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불교계가 주도해 온 북한산 관동 고속순환도로 백지화 운동과 새만금 갯벌 개발 반대 운동, 대규모 신규댐 건설 반대운동 등이 역시 환경운동연합 선정 환경 10대 뉴스에 선정된 것도 불교환경운동의 외연이 확대된 성과입니다. 종교간 연대활동도 활발해져 재가연대를 중심으로 종교NGO 네트워크가 구성돼 종교자정운동에 나선 것도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각 지역에 불교회관이 잇달아 개원돼, 지역 신행공간이 마련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구미, 대전, 창원, 분당에 대규모 불교회관이 자리잡았으며, 인천과 춘천에도 새 불교회관이 착공돼 지역 불교문화 및 신행이 활성화 되는 기미가 다져졌습니다. —주요 교구본사들의 사찰 정체성 찾기 움직임도 활발했습니다. 동화사, 월

출·재가 교육체계 확립에 박수 "태고종 내부갈등 조속 해결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10월 조계종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3급 승가고시는 승가교육체제와 승려취위제 확립을 위한 시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종단의 한 획을 긋는 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신도교육 의무화는 불교신도라면 예외 없이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하기에 신도들의 질을 높이는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계종의 성과는 종단의 '안정' 속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조계종과 선학원이 23년만에 관계 정상화를 이루었으며, 정회회의가 제기한 종단상대 소송이 대법원에서 각각됨으로써 98년 종단사태가 일단락됐고, 월하스님을 통도사 방장으로 재추대 하는 등 종단이 그간의 현안들을 해소했고, 오랜 공적으로 있던 교육원장(무비 스님), 포교원장(도영 스님)을 선출해 안정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만 20개를 넘어섰고, 10월 한 달 동안 10여개 넘는 학술 세미나가 열린 것에서 알 수 있듯 세미나가 급속히 늘어났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수행론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에서 몇몇 세미나에서 논문의 질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발생, 양적 팽창을 어떻게 질적 향상으로 이어갈 것인지를 과제로 남겼습니다.

—문화재는 새로운 조사 성과가 유난히 많았던 해였습니다.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백제 목간 23점이 무더기로 발굴됐고, 백제 절 이름을 두 개나 새로 확인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해방 이후 북한지역에서는 최초의 학술 조사로 기록될 만한 금강산 신계사터 지표조사, 양주 회암사터 실상사, 현왕사터 등 성과를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문화재 도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경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대표전화: 02-737-8881. 인터넷: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www.mahamall.co.kr, www.yosiamun.com.

어렵다! 무엇이? 불교경전은, 여기 펼쳐 보이는 지장경은 자만심에 빠져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숨가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경전이라 생각되어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도록 재미있는 만화로 꾸몄다. 지장경 상, 2권. 본문 4x6변형 배판. 본문 176p, 168p. 내용 전면 COLOR. 본문용지 스노우 화이트 128g. 도서보광사. TEL (02) 993-3808, (031) 856-4241, 출판 (02) 3672-7181~5.